

## 광주 노년 1인가구 여성 > 남성 3배차

### ■ 광주여성가족재단 1인가구 현황

광주지역 10가구 중 3가구는 1인가구이며 노년기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광주지역 1인가구 현황 젠더 인포그래픽스 자료’에 따르면 지역 1인 가구는 19만3948가구로 전체의 32.4%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12번째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3300가구 많았으며 39세 이하 청년기는 남성 22.3%·여성 17.7%, 중장년기(64세 이하) 남성 21.7%·여성 16.5%로 남성 비율이 높았다.

반면 노년(65세 이상)의 경우 남성 5.9%·여성 15.9%로 여성 1인 가구가 남성보다 3배 많

1인가구 19만3948가구 32.4%

청년기·중장년기는 **남더 많아**

20대 주거안정·70대 돌봄 **희망**

았다.

지역별로는 북구 5만9846가구, 광산구 4만7497가구, 서구 4만1730가구, 남구 2만5906가구, 동구 1만8969가구 순이다.

1인 가구가 희망하는 정책 지원도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주택안정 지원에 대해 20대의 경우 81%가 희망했으며 30대~40대 73.6%, 50대~60대 45.3%, 70대 이상 18%였다.

김재환기자



부산 해운대 때이른 물놀이 강릉시 낮 최고기온이 31.7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인 10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 광주·전남 나흘 연속 1만명 대...감소세 뚜렷

### 이달 들어 확산세 꺾여...검사인원 줄어든 점도 영향 미쳐

광주·전남 지역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1만 명대에 머물고 있다.

1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광주·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광주 5335명, 전남 7802명 등 모두 1만3137명으로 집계됐다. 나흘 연속 1만 명대다. 누적 확진자는 광주 43만

3990명, 전남 46만8717명으로 합쳐서 90만명을 넘어섰다.

광주·전남에서는 3월 들어 1만명대 확산세를 이어오다 14일 처음으로 2만명대에 진입한 뒤 3주 가량 2만명대와 1만명 후반대를 오르내리다 4월 들어 확산세가 꺾이면서 1만명대로

내려앉은 상태다.

지난 5일 2만1542명을 제외하고는 4월 내내 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확진자 수도 1일 1만9193명이던 것이 7일 1만5990명, 8일 1만4924명, 9일 1만3137명 등 1만명대 후반에서 초반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전반적인 진정세에다 광주에서만 주중 최대 1만1000명에 달했던 검사인원이 주말 병·의원 휴무 또는 단축 운영으로 5000명대로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박남진기자



10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사고 해역을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 세월호 참사 8주기 ‘눈물의 맹골수도’

“8년이 지났건만, 참사가 일어난 바다로 향하는 일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고통스럽네요.”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둔 10일 오전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세월호 침몰 현장.

해경 3015 경비함정(3000t급)을 타고 이곳을 찾은 새0416단원고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유가족 28명의 고요한 느낌이 거친 파도 위로 울려 퍼졌다.

오전 10시 30분에 이르러 경비함이 맹골수도에 다다르자 햇빛을 부수는 파도 사이로 노란 ‘세월호 부표’가 나타났다.

세상을 먼저 떠난 자식들의 이름을 연신 곱씹던 가족들은 갑판에 주저앉아 바다를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오열하거나,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어깨를 들쩍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선상추모식을 마치고 경비함정이 뱃머리를 돌리는 순간에도 가족들의 애달픈 시선은 노란 부표에 머물러 있었다.

부표를 바라보던 한 가족은 “또 올게, 아빠가 미안해”라며 구슬픈 목소리로 매년 반복되는 영원한 작별인사를 건넸다.

김중기 협의회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 세월호 유가족 28명, 참사 현장 찾아 선상 추모식

#### “가족들, 결코 포기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 다짐

부표를 확인하려 선미 갑판에 오른 가족들은 여기저기서 깊고 짧은 탄식을 내뱉으며 두 눈을 지긋이 감거나 차마 못보겠다는 듯 양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선상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이라는 말과 함께 추모식이 시작되자, 가족들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묵념했다. 1분 동안 고개를 숙인 가족들은 사무치는 당시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듯 고통스럽게 손을 쥐어 보이기도 했다.

피부들이름을 찾는 가족들의 마지막 한 느낌이 푸른 파도로 넘실대는 맹골수도 한복판을 가득 채웠다.

“지난 정부의 방관자적이고 소극적인 태도, 그보다 앞선 정부의 온갖 방해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가족들은 멈추지 않았다”며 “8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성역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아 지치고 힘들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가족들을 향해 “4월이면 더욱 아프고 견디기 힘들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몸을 잘 챙겨야 한다”며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아이들의 명예 회복과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격려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